

1. 조직폭력단의 일원으로 알려진 갑이 소년 K를 차에 태우고 간 것이 목격되었고 이후 K가 실종되었다. K를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갑은 친구 을을 변호사로 선임하였다. <규정>에 근거한 판단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규정>

제3조 【변호사 비밀유지의무】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이하 ‘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알려준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중대하고 임박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비밀유지의무의 대상】

비밀유지 대상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직무상 나눈 비밀 대화 및 문서를 포함한다.

제5조 【비밀유지의 기간】

비밀유지의무는 의뢰인이 포기하지 않는 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지속된다.

—<보 기>—

- ㄱ. 갑이 납치사실을 인정하고 비밀을 지켜 달라고 부탁하면서 K의 소재를 알려주었다면, 을은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 ㄴ. 갑의 소송 진행 중, 갑의 사무실을 청소하던 직원이 갑 몰래 을에게만 갑이 살해한 K의 소재를 알려주었다면, 을은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려줄 수 있다.
- ㄷ. 갑의 소송 진행 중, 갑과 을이 친구들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자신이 K를 납치했다고 갑이 공개적으로 실토했어 을이 K의 소재를 알게 되었다면, 을은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 ㄹ. 갑으로부터 K를 잔혹하게 살해하였다는 것을 듣게 된 을이 변호사의 양심상 더 이상 갑의 변호사가 될 수 없어 사임하였다더라도, 을은 K의 소재를 경찰에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2. Y의 소유권자에 대하여 A와 B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사건 개요>

갑은 을 소유의 소 X를 훔쳐 병에게 팔았다. 갑은 이러한 사실을 병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은 매수할 당시 X가 도둑맞은 소임을 알지 못했다. X는 병의 농장에서 송아지 Y를 출산하였다. 그 후 을은 병의 농장에서 X를 찾게 되었고, 병에게 X와 Y를 모두 자기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법률>

원래의 소유권자는 도둑맞은 물건(도품)을 매수한 사람에게 자신의 소유물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자가 그 물건을 매수하였을 당시에 도품인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2년 동안 보유하였을 때에는 도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된다.

<논쟁>

A: Y는 X의 일부로 보아 판단해야 해. <법률>에 따라 아직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병이 X를 소유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그 경우에 Y도 을의 것이어야 해. 이 경우 X가 Y를 을의 농장에서 수태하였든 병의 농장에서 수태하였든 그것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 또한 <법률>이 정한 기간이 지나 병이 X의 소유권을 갖게 되면 병은 Y도 소유하게 돼.

B: 항상 Y를 X의 일부로 판단할 수는 없어. 물론 병이 X를 소유할 수 있을 정도로 <법률>이 정한 기간이 지났다면 Y도 병의 소유가 된다는 점은 당연해. 하지만 그러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병이 X를 매수한 다음에 Y가 수태되었고, Y가 태어날 때까지 X가 도품인 줄 병이 몰랐다면, 병은 Y를 가질 자격이 있어. 이 경우만은 X와 Y의 소유를 별개로 생각해야 해.

- ① X가 Y를 수태한 것이 도난되기 전이었고, Y의 출산 이후 X가 도품임을 병이 알았는데 그 시점이 매수 이후 2년이 지나기 전인 경우
- ② X가 Y를 수태한 것이 도난되기 전이었고, Y의 출산 이후 X가 도품임을 병이 알았는데 그 시점이 매수 이후 2년이 지난 뒤인 경우
- ③ X가 Y를 수태한 것이 매수 이후이었고, Y의 출산 이후 X가 도품임을 병이 알았는데 그 시점이 매수 이후 2년이 지나기 전인 경우
- ④ X가 Y를 수태한 것이 매수 이후이었고, Y의 출산 이후 X가 도품임을 병이 알았는데 그 시점이 매수 이후 2년이 지난 뒤인 경우
- ⑤ X가 Y를 수태한 것이 매수 이후이었고, Y의 출산 이전에 X가 도품임을 병이 알았는데 그 시점이 매수 이후 2년이 지나기 전인 경우

3. 옛날 어떤 나라에 살던 노비 ‘홍’은 동료 셋과 함께 양민인 주인의 숙부를 구타하여 손가락 세 개를 부러뜨리고 도망하였다가 동료 한 명을 붙잡아 자수하였다. 당시의 <형벌 규정>과 이를 적용한 <처벌 사례>를 근거로 판단할 때, ‘홍’이 받았을 처벌은?

<형벌 규정>

- 장형에는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의 다섯 등급이 있다. 그 위로는 도형에 처해지는데, 도형에는 1년, 1년 반, 2년, 2년 반, 3년의 다섯 등급이 있다.
- 양민이 양민을 물건으로 구타하면 장형 60대에 처한다. ... 물건으로 상해하면 장형 80대에 처한다. ... 치아를 부러뜨리거나 손가락을 부러뜨리면 도형 1년에 처한다. 치아를 2개 이상, 손가락을 2개 이상 손상시키면 도형 1년 반에 처한다. 칼날로 상해하거나 늑골을 부러뜨리면 도형 2년에 처한다. 팔이나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한쪽 눈을 실명케 하면 도형 3년에 처한다.
- 여럿이 함께 사람을 구타하여 상해하였다면 1등급씩 감한다. 범인이 자수를 하면 2등급을 감하고, 같이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붙잡아 자수할 경우 다시 1등급을 감하고, 반수 이상을 붙잡아 자수할 경우 다시 1등급을 감한다.
- 가해자와 피해자 신분이 양민, 상급천민인 부곡, 하급천민인 노비로 서로 다른 경우, 신분의 고하에 따라 1등급을 차등적으로 가감하고, 가해자나 피해자에 주인의 친족이 포함된 경우 다시 1등급을 차등적으로 가감한다.

<처벌 사례>

- 양민 갑의 노비 을은 양민 병과 싸우다 병의 치아를 하나 부러뜨려 도형 2년에 처해졌고, 병의 부곡 정은 갑과 싸우다 갑의 치아를 2개 부러뜨려 도형 2년에 처해졌다.
- 갑의 노비 을은 갑의 숙부 무와 싸우다가 무를 벽돌로 쳐서 상해를 입혀 도형 1년에 처해졌고, 무는 을의 늑골을 부러뜨려 장형 100대에 처해졌다.

- ① 장형 100대                      ② 도형 1년                      ③ 도형 1년 반
- ④ 도형 2년                        ⑤ 도형 2년 반

4. 다음에 나타난 축하곡, 강의 내용, 강연 내용의 보호에 관한 A국과 B국의 저작권법의 차이점을 지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판단은 연주와 강의와 강연을 완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작곡가 겸 가수 갑은 을의 콘서트에 초대 가수로 초청되었다. 콘서트에서 을은 갑에게 콘서트를 축하하는 곡을 즉석에서 작곡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갑은 머릿속에 떠오른 리듬을 기타로 연주하였다. 을의 콘서트에서는 녹음이나 녹화가 금지되었다. 갑이 연주한 축하곡은 A 국에서는 보호되지만 B 국에서는 보호되지 않는다.
- 교수 갑은 자신이 작성한 강의노트를 수업 시간에 침묵 없이 읽어 내려가는 방법으로 강의하였다. 갑은 강의노트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꺼려 수업 중 녹음이나 녹화를 금지하였다. 갑의 강의 내용은 A 국과 B 국 모두에서 보호된다.
- 사회적 쟁점에 대한 시민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주제의 민감성 때문에 녹음이나 녹화는 금지되었다. 저명한 학자 갑은 초청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연구하고 싶은 주제여서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갑이 온 것을 안 사회자는 강연을 부탁하였고 갑은 생각난 것을 즉석에서 강연하였다. 갑의 강연 내용은 A 국에서는 보호되지만 B 국에서는 보호되지 않는다.

- ① A 국에서는 노동력이 투입되면 보호되지만 B 국에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보호된다.
- ② A 국에서는 등록, 허가가 없어도 보호되지만 B 국에서는 등록, 허가가 있어야 보호된다.
- ③ A 국에서는 예술성이나 학술성이 없어도 보호되지만 B 국에서는 예술성이나 학술성이 있어야 보호된다.
- ④ A 국에서는 남의 것을 베끼지 않는 정도의 창작성이 있으면 보호되지만 B 국에서는 독창성이 있어야 보호된다.
- ⑤ A 국에서는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면 보호되지만 B 국에서는 사상이나 감정이 유형의 표현매체에 고정되어야 보호된다.

5. 다음은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AAP)에 의한 간 손상 기전과 용법이다. 제시된 용법에 근거하여 AAP를 안전하게 처방한 사례는?

<AAP에 의한 간 손상>

- AAP가 체내에 들어오면 주로 글루쿠론산 전이효소와 술포전이효소에 의해 각각 글루쿠로니드(glucuronide) AAP와 황산염(sulfate) AAP로 대사되어 안전하게 체외로 배출된다.
- 그러나 대용량의 AAP가 간에서 대사될 때는 대사에 CYP효소가 관여하게 되면서, 독성 대사물질인 NAPQI(N-acetyl-p-benzoquinoneimine)가 형성된다.
- NAPQI는 세포 내 중요 단백질들과 반응함으로써 세포대사를 교란하고 점차 간세포를 사멸에 이르게 한다.
- 이 때, NAPQI가 글루타치온(glutathione)과 결합하면 안전하게 체외로 배출되는데, 아세틸시스테인(N-acetylcysteine)을 투약하면 글루타치온 생산량이 증가한다.

<AAP 용법>

- AAP는 하루 4g 미만의 사용량에서는 간독성을 일으키는 예가 드물지만, 성인에서 간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최소용량이 7~8g 정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이상부터는 주의가 필요하다.
- 21g 이상의 용량에서는 대부분 심각한 간부전으로 이행되기 때문에 1회 21g 이상을 투약해서는 안 된다.
- AAP로 인한 간 손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8시간 이내의 아세틸시스테인을 투약해야한다.
- 이미 진행된 만성 간질환이나 금식 및 영양결핍, 알코올 섭취 등의 특수한 조건에서는 알려진 최소용량보다 더 적은 용량으로도 간세포 괴사가 일어나므로 기본 용법과 다른 투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알코올과 영양결핍의 사례에서 더 적은 양으로도 간 손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알코올은 CYP효소의 활성을 유도하여 독성 대사 물질 NAPQI을 발생시킨다.
  - 영양결핍의 경우는 글루타치온의 생성을 저하시켜 NAPQI의 독성을 중화시키는 것을 방해한다.

- ① 만성화된 알코올성 간질환을 앓고 있는 '갑'에게 AAP를 1회 7g 미만으로 제한하여 처방하였다.
- ② 알코올 섭취나 영양결핍 등 AAP 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 '을'에게 용량 제한 없이 AAP를 처방하였다.
- ③ 영양결핍 증세를 보인 '병'에게 글루쿠론산 전이효소와 술포전이효소가 정상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1회 8g의 AAP를 처방하였다.
- ④ 선천적으로 글루쿠론산 전이효소가 없는 '정'에게 원활한 대사를 위하여, 1회 4g 미만의 AAP 처방 시에도 CYP효소 활성화를 위한 처치를 병행하였다.
- ⑤ 금식 사실을 밝히지 않은 '무'에게 AAP를 1회 4g 처방하였지만, 글루타치온의 정상적 생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그 직후 아세틸시스테인을 처방하였다.